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p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이냐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비앙카)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이우출(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일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일 ✎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일 ✎ 미사 전 15분
관련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 본당 캠페인 >
미사 시작 10분 전 미리 성전에 도착하기

성 축 탄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녀원, 사목위원 일동 -

- 12월 25일(월) ~ 2018년 1월 1일(월)까지 고해성사는 쉽니다.
- 김민수 이냐시오 주임신부님 피정
 - * 12월 26일(화)~12월 30일(토)까지 주임신부님께서 연례피정을 가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 병자안수 축복식: 12월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 병자영성체: 1월은 쉽니다.
- 유아세례: 1월 6일(토) 오후 5시
 - * 유아세례신청은 12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예수성탄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 *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로 모든 신자는 대축일미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2월 24일(오늘) <성탄전야>	오후 8시: 구유예절, 밤 미사 * 구유예물 봉헌 있습니다. * 미사 후 오텁 나눔과 빵쇼 판매
12월 25일(월) <성탄절>	오전 9시, 11시(교중) 오후 3시(어린이, 중·고등부 합동) 오후 5시, 7시 (*오전 6시 미사는 없습니디.)
12월 31일(주일) <송구영신>	오후 8시 (* 기존 주일미사 시간과 동일하며 오후 7시 저녁미사는 없습니디.)
2018년 1월 1일(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9시, 11시(교중) (*교중미사 후 신년 하례식) 오후 3시(어린이, 중·고등부 합동) 오후 5시, 7시 (*오전 6시 미사는 없습니디.)

- 청년 해외 봉사단 모집 (선착순 20명)
 - * 일시: 2018년 1월 30일(화)~ 2월 7일(수), 8박 9일
 - * 장소: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지역(왓파이 국제공항)
 - * 비용: 왕복 항공료 개인부담 (약 50만원, * 기타비용: 본당지원)
 - * 접수마감: 2017년 12월 27일(수)까지 사무실 접수
 - * 문의: 김 프란치스코 단장 (010-5449-6448)
- 성탄 불우이웃 돕기 자선냄비 모금행사
 - * 일시: 12월 23일(토) 전야미사 ~25일(월) 매 미사 후
 - * 교우분들의 많은 사랑과 정성 부탁드립니다.

- 새 사제를 위한 기도
 - * 서품식: 2월 1일(목) 오후 2시, 고척 스카이 돔
 - * 사제품을 받게 될 오명균 세례자요한 부제를 위하여 1월 1일(월)부터 미사 전 함께 기도를 바칩니다.

사제 서품지 ■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세상에 파견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하게 하셨나이다.

저희 본당 오명균 세례자요한 부제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부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신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한국 성직자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중·고등부 주일학교 동계 피정(12월 30일 신청마감)
 - * 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월 13일(토), 1박 2일
 - * 장소: 용인 영보 피정의 집 / * 피정비: 40,000원
 - * 문의: 정 그레고리오 (010-6222-7725)
- 여성구역 물품판매
 - * 일시: 12월 24일(오늘), 30일(토), 31일(주일)
 - * 떡국떡, 가래떡, 절편, 새우젓, 참기름, 들기름 등 판매
- 대림 저금통을 12월 31일(주일)까지 성당사무실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교구 송금)
- 매일미사책 무인판매대 설치 및 복사기 설치
 - * 교우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 앞에 매일미사 책 무인 판매대와 복사기를 설치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 복사기는 사무실에서 복사카드 구입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26일(화):사무실 대체휴무
 - * 성탄 대축일 대체휴무로 사무실 쉽니다.

- 모 임**
- * 12월 24일(주일): 바보회
 - * 12월 25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신문성 베드로)
 - * 12월 26일(화): 시니어 연례회
 - * 12월 27일(수): 성소후원회 / 군중 후원회

성가번호 입 당: 92 예물준비: 216, 217 성 체: 180, 182, 186 파 견: 94

화 답 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7)

[교회를 빛낸 영적독서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며]

◎ 책임기의 연금술사인 영적 독서가들

‘독서 분투기’란 책의 저자 정은숙은 책임기에 대해 “인간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임기가 우리를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둠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비롯한 영적 독서는 삶과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독서를 통해 이미 삶의 모범을 보여준 성인·성녀들을 만나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영적독서가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성인·성녀들이 독특하고 고유한 영적 독서의 혜택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저술은 후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이 어떻게 인생을 좌우하는 지 생생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무살의 젊은 나이에 부자청년에 관한 복음말씀(마태19, 21)을 듣고 모든 유산을 포기한 채 은수생활에 몰입한 안토니우스 성인, “집어라! 읽어라!”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옆에 있던 로마서를 읽고 회심의 눈물을 흘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기도와 성경읽기를 실천하며 방대한 저술을 교회에 남긴 이시도로 성인, 세속적이고 저속한 책과 영적 독서의 식별을 통해 회심의 길로 인도하고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영신수련’의 완성자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저술에 영향을 받으며 완덕의 길로 나아간 성녀 데레사는 오늘날 우리 삶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줍니다.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유용하듯 다섯 분의 성인·성녀가 남겨준 실행과 사상, 그리고 저술은 우리 인생의 현명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 영적 독서를 통해 고유의 독서법을 갖자

특히 안토니우스 성인과 이시도로 성인이 언급한 독서법은 오늘날에도 매우 가치가 있고 유용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책은 자연이라고 하여 ‘열린 텍스트 개념’을 소개한 것과, 독서를 ‘마음의 독서’로 심화시킨 점은 그가 시대를 앞서가는 독서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시도로 성인은 독서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매우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의 독서법은 모든 독서가들에게 여전히 참고할 만한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반추해보면 영적 독서라는 영역이 여러 성인·성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남겨준 영성 서적을 읽으며 시공을 초월해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사귀면서 영적 지혜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인·성녀의 영적인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인문고전 독서에도 맛있게 하여 지식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 합시다. 그래서 각자의 나만의 독서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담동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냐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감사 헌금 (12/13 ~ 12/19)					
대림 제 3주일 봉 헌 금	13,087,830원	총 세 대 수	3,934세대	장 미카엘	1,000,000원	사비나 진	200,000원	故 김주혁	2,000,000원
자 선 주 일	8,315,040원	총 납부세대	1,431세대	임 마태오	50,000원	이현선	100,000원	김 아가다	100,000원
교 무 금	51,040,000원	지난주 납부 세 대	22세대	전 에스텔	1,000,000원	이 헬레나	100,000원	이 베드로	100,000원
성소 후원금 (21건)	601,000원	총 납부율(%)	36.4%	임 사비나	100,000원	김 울리오	100,000원	정 돈보스코	50,000원
				장 그레고리아	200,000원	박 베르나르도	1,000,000원	성체 조배희	150,000원
				합 계: 6,250,000원					